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버이 주일 메시지

모성 母性



이종윤 목사

한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이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의 모성이다.
그러므로 모성이 부패하고 병들면
가정과 사회도 따라서 부패하고 병들게 된다.
모성이 건전하고 성스러울 때
그 가정과 사회는 밝고 신선하고 깨끗할 것이다.
모성은 실로 강한 것이다.
거룩하고 고마운 것이며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잘못되면 그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잘 되면 온 세계를 바른 길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위로와 감사의 큰 박수를 우리의 어머니들께 보내 드리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

- 김창인 목사 오늘 찬양예배시 설교 초청 -

김창인 목사(중현교회 원로 목사)가 오늘 찬양예배시 우리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올해 94세이신 김 목사는 일평생 순교적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이다.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와는 사제 관계로 이 목사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끼친 분 중 한 분이시며 이목사는 그의 후임자였다.

금년 1월 14일 이종윤 목사는 살신성인(殺身成仁)

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김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화해의 손을 내밀고 김창인 목사가 그 손을 잡아주므로 20년간 막혔던 담이 쫓겨나게 되었다. 그분 앞에서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은 감회어린 마음으로 그가 전할 메시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이종윤 목사는 김창인 목사를 '장로교의 날'(7월 10일) 행사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제8회 교구 찬양대회

5월14일(금) 오후7시 - 본당

우리교회 16개 교구 가족들과 예배다부원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2010년 교구찬양대회가 5월14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열린다.

교구찬양대회에 참가하는 교구는 자유곡 1곡을 찬양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참여도 50점, 음악성 20점, 준비성 20점, 관중 호응도 10점으로 하며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김영준 장로, 박정선 장로, 류충기 집사, 유태왕 성도 등이 심사위원으로 수고하게 된다. 최고 득점한 교구



는 사랑상을, 2위 2개 교구는 믿음상·소망상의 순서로 결정 할 예정이다. 사랑상을 수상한 교구는 5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특송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 13, 14, 15, 16교구는 집에 주차하고

오기 바란다. 모든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오후 6시 50분까지 반드시 입장완료하기 바란다.

11대 집사 및 10대 권사 후보 선출

5월16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5월 16일(주) 찬양예배 후 제11대 집사 및 제10대 권사를 각각 60명씩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연다. 당회는 4월 28일(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의 1.5배수인 90명씩을 각각 추천하였다. 명단은 다득점자 순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별지와 같이 정하고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모든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년전부터 자녀를 셋 낳는 가정의 어머니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20년후에 찾는 장기 장학금 통장을 시상한다.올해 장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다.

- 5교구 한상연 집사(정원일 집사)-4자녀 정덕희, 정명희, 정현나, 정성현(09.8.7)
- 5교구 강혜진 집사(안인선 집사)-3자녀 안태훈, 안태현, 안태운(09.5.24)
- 6교구 김수연 집사(송상준 집사)-3자녀 송서현, 송우찬, 송우진(09.11.13)
- 11교구 전춘화 성도(한석호 성도)-4자녀 한규미, 한근호, 한지혜, 한00(2010.4.25)
- 7교구 이주연 성도(김오른 집사)-3자녀 김하은, 김주은, 김하얀(09.4.8)

천국시민양성 - 어버이 주일

통일되는 그 날까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박성호 성도(디아스포라부)



꿈속에서도 늘 그리는 존경하는 부모님!

오늘도 험악한 북한 땅에서 힘들게 살고 계실 부모님을 그리며 불효자 이 아들 늘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불렀던 부모님을 불러봅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 그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어떻게 하나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봤지만 제가 성공할 곳은 북한 땅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 재산을 다 털어 이 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배는 고프지 않도록 용돈을 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야만 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이 불효자를 부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불효자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그 날이 꼭 오리라고 믿고 자유의 땅, 희망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이

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구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고향에 계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 불효자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일되는 그 날까지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캠퍼스에서 사랑하는 아들 성호가 드립니다.



여전도회 특강

5월 11일(화) 오전 11시 - 501호

루디아 여전도회(회장 오정숙 집사)와 보비 여전도회(회장 안미경 집사)가 연합으로 특강을 갖는다.

5월 11일(화) 오전 11시 501호에서 '20억 장학생 엄마의 자녀교육 이야기'의 저자 황경애 집사를 모시고 자녀교육에 관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여전도회원은 물론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박광일 전도사는 지난 5월 4일(화) 서울 강남노회에서 목사인수를 받았다.

가장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미경 집사
(이중윤 목사 삼녀)

가장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품을 떠나 결혼한지도 어느덧 9년 가까이,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버이날 모처럼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짧게 안부만 드렸는데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금 귀한 부모님 아래서 저를 자라게 해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들을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잠자리 들기 전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며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예배로 하루를 시작케 하시며, 식사 때에 기도 습관과, 주일성수, 교회봉사, 또한 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귀한 것인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된 시간들이었음을 깨닫는답니다. 대학 시절,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공부할때는 부모

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음을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릴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 어머니의 기도와 조언은 제게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 되고 보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닮도록 자녀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면, 믿는 자들이 미련한 사람들 같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듯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이 저의 두 아들, 준호와 준영이에게 제가 받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세 자매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 하심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약속드립니다.

막내딸 미경 드림

저의 유년시절을 되돌아보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만 떠오릅니다. 저희 세 자

남을 많이 있고 혼자 힘으로만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역시 부모님께서 뒤에서 쉬임없는 기도와 격



김성신 성도(청년2부)

2004년 여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 스스로를 한 없는 우울함에 몰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치고 납골당에 어머니의 시신을 안치하고 나오는 길에 내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친 상을 당하고 홀로 괴로워하며 우울함에 빠져있던 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때 쓰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결국 내가 앞드려 졌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 복음과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사역에 대해 알 수 있는 영언을 새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가지요~”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어야 할 상황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것은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닌 진정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하나님께서 나를 위로 하시기 위해 역사하신다고 밖엔 생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 그렇지! 엄마는 천국에 가셨지...” 라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

이제는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신 확신이 있기에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신앙적인 고민에 빠질 때나 영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 어떤 것 보다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함께 영적인 교재와 나눔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신앙적 멘토로써 나의 영적 고민들을 함께 들어주고 미리 체험한 부분들을 알려주셨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좀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스물 두 해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보고 느낀 어머니의 신앙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 나의 신앙가운데도 하나하나 살아 납니다. “아!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성경의 이 부분이었구나!, 신앙의 이 위치구나!”
나에게 있어 어머니에 대한 평생의 기억은 오로지 평생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 안에서, 매일 교재와 나눔을 하시던 어머니로 기억되어 집니다. 이제는 나도 그 신앙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기뻐하셨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을 알아가는 지금, 신앙생활가운데 어려운 부분이나 고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신앙을 떠올려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족에게 뿌려졌고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지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도 후에 자녀들에게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이주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가정

김선영 권사 (12교구)

이수경 성도 (12교구)

사랑하는 며느리 수경아,
누구에게나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있듯이 나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두 아들의 배필에 대한 기도가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나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란다.

우리 딸며느리 수경이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천주교회를 다니던 네가 시댁의 종교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너는 언제나 '네'라고 순종하면서 어찌나 잘 따라와주는지 너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며느리를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든다.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곧 바로 시작한 찬양대 봉사,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교회 봉사가 너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을 법한데도 피곤해하는 남편을 깨우고 달래며 연습과 새벽찬양까지 빠지지 않는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

수경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단다. 너는 분명히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될 것을. 그리고 말쑥과 기도로 아기를 양육하는 훌륭한 엄마가 될 것을.

부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의 가정으로 잘 일 구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가정으로 가꿔 나가렴.

존경하는 어머니,
동육씨와 결혼 하고 어머니의 며느리가 된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네요.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한데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를 예쁘게 봐주실까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며느리가 되어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기쁘게 맞아 주시던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요.

아버님과 어머니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이제는 교회생활도 익숙해졌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고부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팔처럼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 여러 가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증인삼고 했던 다짐처럼 신앙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많이 보고 배우며 어머니처럼 신실한 신앙인, 현명한 아내와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미리암 여성선교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린다. 배유리집사의 지휘로 '참좋은신 주님(김기영곡)', '능하신 주의 손(김연준곡)' 등 세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피아노 반주는 김양언성도가, 팀파니는 이하진성도가 담당한다.

아버이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1부 예배 - 중등부, 2부 예배 - 고등부, 3부 예배 - 대학부에서 각각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도서실 봉사부원 모집

도서실에서는 월요일-토요일(저녁 7시-10시)에 봉사하실 성도님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월) 한정중 대표회장이 목회자 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14일(금) 장로교의 날 준비위원회를 갖는다.
- 발령: 김찬기 성도 (10교구, 청년부) 김태삼집사, 조숙자 권사 아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 주재원 발령
- 득남: (2교구) 이종훈 성도, 유지은 성도 가정 (이복규 장로, 한명순 권사 아들 가정)
- 개업: '요요폰마트' (2교구) 임인수 성도, 박문자 집사 서초동 1715-10(지하철 교대역 10번출구 앞) T. 02-529-3731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5월 9일) 빌립선교회(5월 16일)
- 금주의 식사: 이남성 집사 최영란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은혜 중에 마치고) 박광일 목사 이현옥 사모 가정 (목사안수를 받고 감사드립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요정오음악회 5월 11일(화) 정오 - 박원선 오르간 연주회



박원선 / 오르간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오르간과 졸업 (Diplom)
- 독일칼스루에 국립음대 오르간 최고연주

- 자과정 졸업(Konzertexamen)
- 독일칼스루에 국립음대 첼발로과 졸업(Diplom)
- 현재, 한일장신대 예술학부장
- 영락교회 시온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2. 37학기 목회자 세미나, 27학기 서울성경대학 위하여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제8회 교구찬양대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5. 복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우시는 길

